민주 비대위원 인선 주말께 마무리

문희상 위원장 "내주 초 첫 회의 목표"

계파·지역안배 주안…절반은 외부인사

민주통합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의원을 합의 추대한 가운데 비대위원 인선과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원장 선출을 놓고 그동안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첨예하게 맞서왔다는 점에서 비대위 인선 등이 잘못될 경우, 다시 한 번 내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남의 절대적 지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대위원에 호남지역 의원의 참여 여부도 주목된다. 일단 비대위원 인선은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 될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늦으면 주말까지 갈 수 있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 비대위 첫 회의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기춘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 중진의 의견도 반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비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안팎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외부 인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이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이준석 비대위원을 영입한 것과 같은 '깜짝 인선'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김영록 비대위 사무총장은 "문 위원장이 외부인사들과의 접촉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확답을 얻었으며 일부 인사는 '시간을 좀 달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이 '관리형' 이미지가 강한 것을 감안해 비대위원으로는 '혁신형' 이미지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파와 지역을 안배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여성 몫으로 두 자리를 할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비대위원과 함께 대선 평가위원회, 정치 쇄신 및 혁신 위원회, 전대 준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비대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정치혁신 분야에 문재인 의원을, 대선평가위원장 후보에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 전대 준비위원장 후보군으로 정동영 정대철 상임고문 등을 각각 거론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정치 혁신 분야를 문재인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정동영 상임고문과 김한길 의원이 비대위 분과 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도 확실치 한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비대위가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파간 역할 분담에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엄격한 대선 평가와 당내 혁신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당내 각 계파에서는 비대위 대선 평가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 비대위원장은 대선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평가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강기정 의원, 이석현 의원,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내정자(사진 왼쪽부터)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정책이행 '로드맵' 만들라"

부처별 업무보고시 활동 기본방향 설정

지역 현안, 주민 입장·실현가능성 점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정부부처별 인수위 업무보고와 관련, 새롭게 정책을 만들지 않고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업무보고 시 지역 현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의 입장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금융연수원의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브리핑에서 "분과간사 회의에서 업무보고의 목적과 활동에 대해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업무보고에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구현에 적정한지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은 없는지 ▲재원 대책은 마련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부처별 업무보고→분과위별 검토→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당선인 보고 등 5단계 과정으로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7대 업무보고 체크리스트'의 세부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앞서 인수위는 7대 지침으로 ▲부처 일반현황 ▲추진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예산절감 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을 각 부처에 통보한 바 있다.

윤 대변인과 각 부처에 내려보낸 업무보고 지침에 따르면 부처 일반 현황은 지침 목차대로 작성이 됐는지, 인력과 예산 현황 등이 인수 목적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작성됐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한다.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처의 성과 평가가 적절한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새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이뤄지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 4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대검 중수부 폐지 확실 서울국세청 조사4국도 거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11일부터 실시되면서 검찰청·경찰청·국세청·국가정보원 등 4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 기간 공약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은 명확히 했지만 나머지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선 검찰의 경우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대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차관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개혁안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은 이 밖에도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제 신설, 검사 외부기관 파견 제한, 비리퇴직 검사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경찰의 경우 박 당선인은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인력을 2만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으며,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휴일·야간근무수당 단가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경찰개혁이 아닌 검찰의 권한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세청 개혁에 있어서는 일단 세무조사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점이 참고될 전망이다. 우선 국정원 1, 2, 3차장의 역할 분담이 관심이다. 현재 1차장은 해외, 2차장은 국내, 3차장은 북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부분을 아예 분리시켜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조기전대' 경선 출마 저울질

내년 광역단체장 도전 정치적 지렛대 모색

민주당에서 3월 '조기 전당대회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도부 입성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대위에서는 늦어도 3월말까지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도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기 공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과감한 도전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대선 패배에 따른 지역 민심의 정치적 갈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현재 지도부 경선 도전 물망에 거론되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4선의 이낙연, 3선의 주승용, 강기정, 김동철, 우윤근 의원 등이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강력한 당권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대부분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및 광주시장 도전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동철, 강기정 의원은 광주시장 도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낙연, 주승용 의원도 강력한 전남지사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박지원, 우윤근 의원도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전남지사 도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지역 다선 국회의원들이 지도부 입성을 지렛대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다선 국회의원들이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 변화"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당내 주류를 중심으로 정치적 줄타기에 급급했던 다선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도부 도전에 나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계륜 의원 대선패배 '참회의 남도답사'

걸어서 신안 하의도~김해 봉하마을까지

13일 300㎞ 대장정길에

민주통합당 신계륜(서울 성북 을) 의원이 신안 하의도에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까지 남도 도보 답사에 나선다.

10일 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신 의원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참회, 혁신과 쇄신을 위해 신안 하의도고 김대중 대통령 생가와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마을에 이르는 300여㎞를 도보로 완주한다.

신 의원은 1차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하의도에서 무안 전남도청, 나주를 경유해 광주 옛 전남도청까지 걸을 예정이다.

답사단은 오는 14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박준영 지사와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동참 여부는 미지수다. 비대위 출범과 인사청문회,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월 중에 외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신 의원의 도보 답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보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떠한 반성의 모습을 보였는지 반추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매투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투자대비 고수익 보장
NPL투자
▶낙찰받을 확률 100%
▶양도소득세 無
▶소액투자 가능
▶단기내 투자금 회수
★특수비법 배우실 분 상담★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상담전화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상담전화 김 종 원 이사 010-8227-7759
☞ 물류센터 [전북김제] ☜ 대8076㎡ ,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6억 5천
☞ 근린시설[수기동] ☜ 대197㎡ , 건722㎡ 감정가 14억 최저가 5억 7천
☞ 주유소 [나주남평] ☜ 대4428㎡ ,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5억4천
☞ 신안압해 [횟집,판매] ☜ 대4706㎡ ,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8억
☞ 원룸[계림동] ☜ 대333㎡ , 건803㎡ 감정가 6억7천 최저가 3억7천
☞ 상가[신창동] ☜ 대 67㎡ , 건 134㎡ 감정가 2억5천 최저가 1억1천
☞ 공장 [나주공산] ☜ 대29710㎡ , 건1826㎡ 감정가 17억 최저가 8억
☞ 숙박시설 [치평동] ☜ 대704㎡ ,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 공장 [장성동화] ☜ 대1983㎡ , 건2320㎡ 감정가 7억 최저가 3억 9천
☞ 임야 [전주완산] ☜ 대지 20975㎡ 감정가 3억3천 최저가 1억3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1506평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최저가 25억5천
☞ 북구 대촌동[2층공장] ☜ ▷대지3289평 ▷건물1601평 ▷감정가 52억4천 ▷최저가 36억7천
☞ 운암동 (근린시설) ☜ ▷대지 352평 ▷건물 1047평 ▷감정가 39억5천 ▷최저가 27억7천
☞ 화정동[예식장] ☜ ▷대지330평 ▷건물1016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1억(협의후결정) 요양병원적합
☞ 첨단 (오피스텔) ☜ ▷대지154평 ▷건물389평 ▷감정가 13억5천 ▷최저가 10억8천 수익률 최고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 12월31일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십니다.
* 찬모(여)2명,설겆이(여)1명,홀서빙6명,매니저(남,여)2명,매점(여)1명,경리(여)1명,영업부(남,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퇴직금,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접수시 면접,상담가능(시간예약) H.010-7570-7525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구주택(원룸, 투룸, 쓰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300평, • 용도지역:자연녹지 • 용도 : 주차장
■ 창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차량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창고용도로 적합
■ 비아동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룡면, 장성IC에서 2.5㎞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